

깊어가는 가을 국악과 함께

무주군, 오늘 예체문화관 대강당서 국악콘서트

무주군은 16일 저녁 7시 30분 무주읍 예체문화관 대강당에서 "국악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무주군이 주최·주관하는 이날 행사는 공연을 통해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선사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되는 것으로, 탈린트 겸 가수 김성환 씨와 국악인 박애리 씨, 국악인 지유진 씨가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1994년 '마지막 여자'를 발표하면서

가수활동을 시작했던 김성환 씨는 "인생, 동동구부루, 몸지마세요" 등으로 공감의 무대를 선보이며 구수한 입담으로 훈훈한 시간을 함께할 예정이다.

불후의 명곡 등을 통해 대중과 친숙해진 박애리 씨는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춘향가" 이수자로 이날 무대에서는 "썩대머리, 화무십일홍, 나 가거든" 등을 열창한다.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오정숙 동초제 판소리 이수자이자 한국의 소리보존회 대표 지유진 씨는 자신의 퓨전 국악앨범 "연"에 수록돼 있는 "사랑가, 오늘 하루만, 뱃놀이" 등을 선사하게 된다.

주민들은 "주변이 온통 가을 색인데 가슴을 울리는 국악무대가 마련된다고 해서 기대가 된다"라며 "모처럼만에 아이들 손잡고 부모님 모시고 가서 좋은 시간 보내고 올 것"이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이항로 진안군수 귀농정책 특강

추진사업·계획, 지역주민과의 융합 방법 등 설명 호응

이항로 진안군수가 15일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능훈련원에서 실시하는 귀농귀촌 입업후계자 양성 과정에 참석해 진안군의 귀농귀촌 정책을 소개했다.

이날 이 군수는 진안군 귀농정책의 원칙, 귀농귀촌 추진사업과 추진계획, 귀농귀촌의 갈등요인, 지역주민과의

융합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호응을 얻었다.

진안군은 2006년부터 마을 간사제도를 추진하여 지역에 정착시켰으며,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과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체재형 가족농원과 귀농인의 집 지원사업을 통해 귀농 준비를 체계적으로 도와주고 있다.

또한 전원마을 3개 지구 조성, 소규모 마을 기반조성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예비 귀농귀촌인을 위한 게스트 하우스를 신축 중이다.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을 통해 도시민 상담과, 귀농학교 운영, 농지와 주택정보를 구축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주민유대강화 프로그램 등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항로 군수는 "청정 지역인 진안고원에서 귀농귀촌인들이 제2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지속하겠다"면서, "귀농귀촌인이 지역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지역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이항로 진안군수가 15일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능훈련원에서 귀농귀촌 입업후계자 양성 과정에 참석해 진안군의 귀농귀촌 정책을 소개했다.

진안군, 담수어종 제왕 쏘가리 치어 10만여 마리 방류

생태계 복원 기대

진안군이 최근 용담호와 읍·면 공공용수면 4개소에 외래어종 배스의 천적인 쏘가리 치어 10만여 마리를 방류했다.

이번에 방류한 쏘가리는 대표적인 토속어류로 포식성이 강해 어류를 잡아먹으며 배스 알 또한 다 먹어 치워 토산어종 보호에 큰 기여를 하는 품

종이다.

치어 크기는 전장 4cm 이상으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전염병 검사를 합격한 건강한 종자다. 향후 3~4년이면 어업인이 선호하는 부가가치가 높은 최고급어종으로 성장해 어업인 소득 증대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방류에는 관계기관은 물론, 진안군어업계연합회 어업계원 및 주민

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방류수면에 대해 자율적인 불법조업 감시 등을 통해 수산자원이 증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매년 예산을 확대해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종자를 지속적으로 방류하는 등 자연생태계 회복과 어업인의 소득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 국가공인 제빵기능사 자격시험 19명 합격

관광산업 식품전문 인력 양성사업 추진 결실

무주군에서 국가공인 제빵기능사 19명이 나왔다. 무주군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관광산업 식품전문 인력 양성사업' 교육생들로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실시됐던 실기 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박운선 씨(54, 적상면)는 "이 나이에 해낼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좋은 교육받고,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까지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라며 "자격증 취득으로 그치지 않고 연구와 실습을 거듭해 무주를 대표하는 빵을 꼭 만들어 보급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관광산업 식품 전문 인력 양성사업' 수업을 위해 전주 기전대학교와 협약을 맺고 지난 7월 23일부터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과정 교육(총 160시간)을 실시해왔으며 120시간을 제빵교육에 중점을 두고 제빵 이론과 기계 기구 사용법, 실기 이론 실습(유유식빵, 단팻빵, 버터롤, 그라나니시) 등을 진행했다. 이외에도 커피 바리스타 교육과 한식·양식 레시피 교육 등 실전에서 바로 활용이 가능

한 관광 특화 레시피 식품교육을 비롯한 취·창업 및 진로개발에 필요한 전문 서비스 교육(의사소통능력향상, 서비스마인드, 이미지메이킹, 취·창업 전략 세우기 등)을 실시해 호응을 얻었다.

무주군청 관계자는 "이번 사업에 참여한 교육생 20명 가운데 19명이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하는 결실을 얻었다"라며 "지속적인 취·창업지원을 통해 주민들에게 확실한 동기부여를 해서 무주경제가 활력을 찾고 더불어 관광산업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광산업 식품 전문 인력 양성사업" 참여 교육생들은 무주반딧불축제 기간인 9월 5일 최북미술관 다목적 영상관에서 작품 전시와 시사회, 핸드드립 시연과 커피 시음회를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는 천마, 사과, 아로니아, 호두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해 만든 △사과스위트를 △호두빵 △호두만주 △아로니아빵 등이 큰 호응을 받았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은 '뜰봉샘 금강발원지길 걷기행사' 참가자를 모집한다.

장수 뜰봉샘 금강발원지길 걷기 행사 참여자 모집

장수군은 전북 1000리길 생태문화 체험을 위한 '뜰봉샘 금강발원지길 걷기행사'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걷기행사는 오는 27일 장수읍 수분리 금강사랑물체험관에서 출발해 금강발원지 뜰봉샘을 지나 신무산 정상 을 돌아오는 4km 구간 코스다.

참가신청은 장수군청 환경위생과 뜰봉샘생태공원 (☎ 063.353-7002)을 통

해 접수하면 되며 점심은 전북도 생태관광지로 지정된 수분 생태마을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아름다운 단풍과 역사가 아우러진 전북 천리길의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걷기행사가 뜰봉샘생태관광지와 전북 천리길 장수구간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매아리

장수읍 노인의 날 행사 성황리

장수읍 노인회가 주최한 제22회 장수읍 노인의 날 기념행사가 15일 한누리전당 산디관에서 700여명의 어르신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기념행사에는 장영수 군수와 차주연 장수읍장, 각 기관·단체장 등이 참석했으며 장수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지역특성화 팀 밴드의 공연을 시작으로 행사가 진행됐다.

기념식에서는 노인복지 발전에 힘쓰는 북동마을 박군강(77·여)씨에 대한 감사패가 전달됐다. 이어 어르신 한마당과 축하 공연 등이 펼쳐져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장영수 군수는 "최근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 마련과 따뜻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장수군에서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과 목욕권, 이미용권 지원 등 어르신들의 건강생활을 도모하여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함께해서 행복한 남이섬 여행'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무주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장진원)에서는 18일 2018년 문화탐방 함께해서 행복한 남이섬 여행을 실시한다.

2018년 문화탐방의 주제는 함께해서 행복한 남이섬 여행으로, 올해 무주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거듭난 만큼, 다양한 국적간 문화 통합, 이웃의 관계형성, 가족애를 성장시키는 귀중한 시간을 제공하고 자 사업명을 결정하게 되었다.

올 해 진행되는 문화탐방은 '함께'라는 화합의 의미를 강조하고자 선주민 가정을 포함한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등 다양한 국적의 센터 이용자들이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되며, 남이섬이 가지고 있는 한국의 문화, 새로운 문화지 탐방을 통해 개인 지식의 견문을 폭 넓게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문화탐방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한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며 활동하고 있지만 정작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각 가정의 대상자들에게 여행이라는 공통된 취미를 공유함으로써, 소통의 활로를 열어주고 각자가 가진 차이점을 인식하고, 인정함으로써 친밀감 형성에 큰 도움을 주고자 계획되었다.

이번 남이섬 여행을 통해 무주 지역센터 이용자들에게 실질적인 문화탐방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함께'하는 즐거움을 알아갈 한 마음 한 가족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무주=전문선 기자